

# 浮腫에 대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의 病理와 藥理의 연관성의 考察

文 成 煥 \*

## I. 緒 論

古醫에서는 太少陰陽人の 臟理에 對하여 未  
盡하였으나(材7,8) 宋元明에 와서야 少陽少陰  
人の 病理, 藥理는 거의 소상이 밝혀졌으나 太  
陰人에 대해서는 절반쯤 太陽人에 관해서는 거  
의 밝혀지지 않았다.(材5) 따라서 浮腫에 대하  
여 證治醫學의 病因, 形症, 治法, 藥物의 使用  
에 대한 病證 藥理의 觀點과 四象醫學의 太少  
陰陽人の 體質의 特性에 따른 分類의 病證·  
藥理와의 觀點의 关联性 比較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II. 材 料

1. 凡水腫等證 乃肺脾腎三臟相干之病 蓋水爲至  
陰 故其本在腎 水化于氣 故其標在肺 水惟畏土  
故其制其脾.

〈景岳全書·腫脹篇〉

2. ① 陽水 熱渴二便利

汗下分消 要得宜

② 陰水 身涼 大便利

補中行濕 或升提

〈醫學入門·水腫篇〉

3. 人稟臟理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 東醫壽世保元을 東이라함 〈東·四端論〉

4. 水穀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  
而入于大腸 自大腸而入于肛門者 水穀之都數停畜  
於胃而薰蒸爲熱氣 消導於 小腸而平淡爲涼氣 熱  
氣之輕清者上升於胃脘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  
降於大腸而爲寒氣.

〈東·臟腑論〉

5. 少陰人 病證 張仲景 庶幾乎 昭詳發明而 宋  
元明 諸醫 盡乎昭詳發明 少陽人 病證 張仲景  
半乎昭詳發明而 宋元明 諸醫 庶幾乎昭詳發  
明 太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略得影子而 宋元明  
諸醫 大半乎 昭詳發明 太陽人 病證藥理 朱震亨  
略得影子而 本草 略有藥理

〈東·醫源論〉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체질의학전공

6. 宋元以後 明以前 病證 藥理 李梴 龔信 許浚 傳之 若以醫加勤勞功業 論之則 當以 張仲景 朱肱 許浚 爲首而 李梴·龔信 次之。

〈東. 醫源論〉

7. 蓋 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者 爲病而 但知脾胃 水穀風寒暑濕觸犯者 爲病故 其論病論藥全局 都自少陰人 脾胃水穀中出來而 少陽人 胃熱證藥 間或 有焉 至於太陰人 太陽人病情則全昧也。

〈東. 醫原論〉

8. 太陽人 小便 旺多則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 善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 善化則 完實而無病。

〈東. 辨證論〉

9. 太陽人 噎膈則胃脘之上焦 散豁如風 太陰人 痢病則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少陽人 大便不通則胸膈 必如烈火 少陰人 泄瀉不止則臍下 必如冰冷 明知 其人而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

〈東. 辨證論〉

10. 靈樞書中 有太少陰陽 五行人論而 略得外形 未得臟理 蓋 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未盡精究也。

〈東. 辨證論〉

11. 論曰 陰黃 卽少陰人病也 當用朱氏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女勞之黃 熱家之黃 利小便之黃 想或 非少陰人病而余所經驗 未嘗一遇黃疸而治之 故未得仔細衷許然 痞滿黃疸浮腫 同出一證而有輕重 若欲利小便則 乾干 良干 陳皮 青皮 香附子 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荊芥 防風 羌活 獨活 茯苓 澤瀉 能利少陽人小便。

〈東. 少陰人 胃受寒裡寒論〉

12. 諸疸 小便黃赤色者 爲濕熱 當作濕熱治 小便色白 不可除熱者無熱也。若有虛寒證 當作虛勞治。

〈東. 少陰人 胃受寒裏寒論〉

13. 少陰人病 有二吉證 人中汗 一吉證也 能飲水 一吉證也。 少陰人病 有二急證 發熱汗多 一急證也 下利清水 一急證也。

〈東. 少陰人 泛論〉

14. 古醫 有言 頭無冷痛 腹無熱痛 此言非也 何胃然耶。 少陰人 元來冷勝則其頭痛 亦自非熱痛而即冷痛也。 少陽人 元來熱勝則其腹痛 亦自非冷痛而即熱痛也。

〈東.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

15. 浮腫爲病 急治則生 不急治則危 用藥早則容易愈也 用藥不早則孟浪死也 此病 外勢平緩 似不速死故 人必易之 此病 實是急證 四五日內 必治之疾 諷不可以 十日論之也 浮腫 初發 當用木通大安湯 或 荊防地黃湯加 木通日再服則六七日內 浮腫必解 浮腫解後百日內 必用荊防地黃湯加 木通二三戈 每日 一二貼用之以清小便 以防再發 再發難治 浮腫 初解飲食 尤宜忍飢而小食 若如平人大食則 必不免再發 大畏小便赤也。 小便清則浮腫解小便赤則浮腫結。

〈東. 少陽人 泛論〉

16. 太陰人 有腹脹浮腫 當用乾栗<sup>15</sup>粥湯 此病 極危險證而十生九死之病也 雖用藥病愈 三年內 不再發然後 方可論生 戒侈樂禁嗜慾 三年內 宜恭敬心身 調養慎攝必在其人矣 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治之則十病九死也 此病 不可以病論之而以死論之可也 然則如之何其可也 凡太陰人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或淋病小便不利 食後痞滿腿脚無力病 皆浮腫之漸 己爲重險病 而此時 已浮腫論而蕩滌欲火 恭敬其心 用藥治之可也

〈東.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17. 三陰 結爲謂之水

註曰 三陰結 謂脾肺之脈 俱寒結也 脾肺寒結則氣化爲水。

〈內經〉

18. 腫脹大法 宜輔中行濕 利小便 以人蔘白

朮爲君 蒼朮陳皮茯苓爲臣 黃芩麥門冬爲使 以肝木少加厚朴以消腹脹氣不運加木香 木通 氣下陷加升麻 柴胡 此 補中治濕湯方也。

〈丹溪心法〉

19. 夫爲腫之水乃腐 濁之氣 滲透經絡 流注谿谷 灌入遂道 血亦因之而化水 欲藉脾土以制之導腎氣以利之 殊不知脾病則金氣衰 木寡於長而來侮土 脾欲不病不可得矣 治法宜清心經之火 補養脾土 全運化之職 肺氣下降 滲道開通 使敗濁之氣稍清者 復回而爲氣爲血爲津液 甚者 在上爲汗 在下爲尿 以漸而分消矣。

〈丹溪心法 水腫篇〉

20. 諸有水者 腰以下腫 當利小便 宜五苓散 澤瀉散 神助散 腰以上腫當發汗 乃愈宜 麻黃甘草湯 越婢湯 防己茯苓湯 陽水宜八正散 或人參敗毒散 加麻黃 防風 黃芩 梔子 陰水宜實脾飲 胃苓湯 復元丹。

〈東醫寶鑑 浮腫篇〉

### Ⅲ. 總括 및 考察

#### 1. 浮腫의 分類 및 原因

##### (A) 證治醫學

證治醫學에서는 浮腫을 크게 陽水와 陰水로 區別한다.<sup>1)</sup> (材2) 이때 陽水에는 風水泛溢, 濕熱壅盛으로 分類하고 陰水에서는 脾陽不振 腎陽虛衰가 있다.<sup>2)</sup> 그 원인에서 風水泛溢水腫은 肺의 主宣降 外合皮毛 通調水道의 機能이 風邪가 外襲하여 肺失宣降하면 皮毛의 開闔作用이 失常되어 汗이 外泄할 수 없게 되어 肺氣가 不降하면 水氣가 不行하여 外閉內壅되어 水液이 停留되므로 肌膚로 泛溢하여 水腫을 發한다.

濕熱壅盛水腫은 濕邪가 久鬱化熱하거나 혹은

平素 肥甘酒酪을 恣食하여 溫熱이 內盛하여 膀胱의 氣化作用을 混亂시키게 되어서 小便不利하여 水腫을 誘發한다.

脾陽不振水腫은 大개 勞倦太過 飲食失常하거나 본래 脾虛한 것으로 因하여 運化作用이 失司되면 水濕이 內停한다.

腎陽虛衰水腫은 房勞過度·生育不節 혹은 久病失養으로 因하여 腎陽이 不足케 되면 氣化作用이 濕亂되어 水飲이 泛濫한다.<sup>3)</sup> 또한 朱丹溪는 水腫이 脾가 虛하고 濕이 勝하여 engk고 단혀서 물이 正常的으로 運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고<sup>4)</sup> 다른 醫家는 腎의 熱이 膀胱에 傳하면 熱이 盛하여 脾胃를 거슬리고 脾가 虛해서 腎水를 制御하지 못하니 發生하는데 腎水가 勝해서 脾土를 물리치고 또 도리어 心火를 이기며 心이 또 肺를 이겨서 喘하기 때문이다.<sup>5)</sup> 따라서 이런 諸家의 의견을 종합해 考察하여 보면 浮腫의 原因은 肺脾腎의 세 臟器의 主된 病的 現象인 것으로 알 수 있다.(材1)<sup>6)</sup> (材17)

즉 ㉠ 肺失宣降

㉡ 腎膀胱濕熱

㉢ 脾腎陽虛

의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겠다.

##### (B) 四象醫學

四象醫學에서의 浮腫에 대한 概念은 사람이 先天的으로 臟腑의 大小가 서로 달라 各體質마다 病的 形態 治療方法도 달라지는 것인데 (材3) 臟器의 大小로 因해서 큰 臟器는 더욱 實하기 쉽고 작은 臟器는 더욱 虛하기 쉽기 때문에 病이 發生하는데<sup>7)</sup> 여기에서는 證治醫學에서는 太陰, 少陽, 少陰人의 病理, 藥理만을 언급하였으므로(材5) 太陰 少陽 少陰人에 對하여서만 論하며 精神的인 部分에 對하여서도 不論한다.(材7)

少陰人은 腎大 脾小하기 때문에(材3) 腎陰이

왕성하고 脾陽이 不足하여 脾胃가 陰化하기 쉬우며<sup>8)</sup> 따라서 항상 病의 原因이 寒冷으로 인하여 發生하게 된다.(材14) 따라서 浮腫의 原因도 虛冷으로(材11,12) 보았으며 證治醫學의 脾腎陽虛에 相應한다 할 수 있겠다.

少陽人은 脾大腎小하기 때문에(材3) 脾腎陰이 不足하고 脾火가 왕성하여 陰虛하기 쉬우며<sup>9)</sup> 따라서 病의 原因이 熱로 인하여 發生하게 된다.(材14) 따라서 浮腫의 原因도 熱로 보았으며 證治醫學의 腎膀胱濕熱에 相應한다고 할 수 있겠다.

太陰人은 肝大肺小하기 때문에(材3) 肺의 呼出力이 不足하면 衛氣가 弱해져 寒邪에 걸리기 쉽다. 또한 肝熱이 發生하기 쉽다.<sup>10)</sup> 따라서 病에 걸리면 汗의 通暢이 잘되면 건강해 진다고 하였으며(材8) 따라서 浮腫의 原因도 肺의 升降作用과 肝熱로 보았으며 證治醫學에서는 太陰人의 病理, 藥理에 대하여 完全하지 않으므로(材5,7) 꼭 부합하지는 않으나 肺失宣降에 相應한다고 할 수 있겠다.

## 2. 浮腫의 症狀

### (A) 證治醫學

水腫은 水液이 蓄積되어 肌膚에 泛濫한 것으로 頭面, 目窠, 胸腹, 四肢 심하면 全身까지 浮腫을 일으키는 症狀인데<sup>11)</sup> 그 대표적인 症狀은 陽水는 熱渴, 二便閉, 陰水는 身涼 大便利(材2) 하는데 風水泛濫水腫은 水腫驟起. 見于眼瞼或頭面 經則四肢或全身皆腫, 小便不利, 發熱惡寒或惡風, 咳嗽氣急 咽喉腫痛<sup>12)</sup> 으로 表證을 兼하는 것이 他水腫과의 特徵이다.

濕熱壅盛水腫은 遍身浮腫하고 皮色光亮 胸腹脹滿, 煩熱 口渴 小便短赤, 大便乾結로 熱盛으로 他水腫과의 特징으로 볼 수 있다.

脾腎陽虛水腫에서는 全身水腫중에 腰以下가

심하며 倦怠無力하고 腰部冷痛<sup>12)</sup> 四肢不溫, 小便不利 納呆泄瀉으로 寒盛으로 他水腫과의 特징으로 볼 수 있다.

### (B) 四象醫學

體質醫學에서 浮腫이 어떠한 特定の 體質에서 일어나는것이 아니나 각 體質에 特徵에 의한 病證을 살펴보면 少陰人의 病의 原因은 寒冷으로서(材9,14) 따라서 脾腎陽虛形의 泄瀉, 四肢不溫, 冷痛, 倦怠無力等 주로 寒에 의한 病證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少陽人의 病의 原因은 熱로서(材9.14) 口渴, 小便短赤, 大便乾結等 주로 熱에 의하여 病證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太陰人은 肺氣不足으로 因한 衛氣不足으로 表邪가 침범하는데 따라서 汗의 순환이 잘되면 건강한 상태인데(材8) 風水水腫의 形症이 꼭 부합하지는 않으나 表證에 主된 原因을 두고 또한 症에서도 表證에 관련된 證으로 나열하였으므로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3. 浮腫의 治法 및 藥物

### (A) 證治醫學

腫脹을 다스리는 大法은 補中行濕(材18) 利小便으로 陽水는 汗下分消하고(材2) 陰水는 補中行濕或升提하는데 이는 脾土를 빌려서 制御하려고 腎氣로 引導하여서 利하게만 하려 하고 자못 脾가 病들면 金氣가 衰하고 木이 두려움에 쫓겨와서 土를 업신여기니 脾가 病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治法은 마땅히 心經의 火를 맑히고 脾가 運化의 職을 主宰하는 것을 도와주면 肺氣가 下降하고 水氣가 開通하므로 敗濁한 氣로 하여금 차차 맑아져서 돌아오게 하면 氣가 되고 血이 되는 법이니 甚한 것은 위로는 땀이 되고 아래로는 小便이 되어 漸漸分消된다.(材19)

따라서 水症이 있으면 허리 以下가 부으면 小便을 利해야 하고 허리 以上이 부으면 發汗해야 한다.(材20)

따라서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肺失宣降에는 發汗, 膀胱濕熱에는 利小便, 脾腎陽虛에는 補中이 主된 요법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藥物 使用에 있어서도 허리 以下에는 五苓散 澤瀉散 神助散을 쓰고 허리 以上에는 麻黃甘草湯 越婢湯 防己茯苓湯을 쓰고 陽水症에는 八正散을 쓰고 陰水症에는 實脾散, 胃苓湯 復元丹을 쓴다.(材20)

### (3) 四象醫學

少陰人의 病證을 治療하는 方法은 溫胃而 降陰시키거나 健脾而降陰시키는 藥物을 使用<sup>13)</sup> 하는 것인데 浮腫을 治療하는 것에는 香砂養胃湯, 芎歸葱蘇理中湯, 保命飲, 鎖陰膾, 十二味寬中湯<sup>14)</sup> 으로 治療하고 있는데 이는 證治醫學에서 脾腎陽을 補中시키는 方法과 相應하며 藥物에서도 人蔘 白朮 乾干 良干 陳皮 青皮 香附子<sup>15)</sup> (材11) 益智仁 등으로 陰水를 補中 治법으로 脾腎陽을 補助시키는 藥物이다.

少陽人의 病證을 治療하는 方法은 清裡熱시켜주고 散風熱시키고 補眞陰하여 腎陰은 淸陽을 上升시켜주는 藥物을 使用하는 것인데<sup>15)</sup> 浮腫을 治療하는 것에는 木通大安湯 木通無憂湯 荆防地黃湯 猪苓車前子湯 涼隔散火湯등으로 治療하고 있는데 이는 證治醫學에서 腎膀胱濕熱을 除하는데 利小便시키는 方法과 相應하며 藥物에 있어서도 澤瀉, 茯苓, 荆芥, 防風, 羌活, 獨活(材11), 猪苓, 車前子, 木通등으로 陽水를 利小便 治법으로 淸熱시켜주는 藥物이다.

太陰人의 病證을 治療하는 方法은 發汗시켜 表寒之邪를 풀어주거나 潤肺淸心시켜 肺의 淸陽을 升提시켜주거나 肝陰의 鬱熱을 없애는 淸肝解鬱<sup>16)</sup> 하는 藥物을 使用하는 것인데 浮腫을

治療하는 것에는<sup>17)</sup> 葛根浮萍湯, 乾栗蟬蛻湯, 太陰調胃湯 熱多寒少湯 등으로 治療하고 있는데 이는 證治醫學에서 肺失宣降에 發汗시키고 肝鬱熱을 解하는 藥物과 相應하는데 太陰人에 藥理 病理에 完全하지 않으므로 完全히 相應하지는 않는다.

## IV. 結 論

證治醫學에서 浮腫에 대한 考察과 四象醫學과의 比較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證治醫學과 四象醫學의 연관성에서 腎膀胱 濕熱形은 少陽人과, 脾腎陽虛形은 少陰人의 病理, 藥理와 많은 相應하며 肺失宣降形은 太陰人의 病理 藥理와 相應하는 것이 있다.

2. 四象醫學은 證治醫學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理論의 바탕으로 體質에 따른 사람마다의 特徵적인 長短點을 파악하여 應用한 醫學임을 알 수 있다.

## 註

- 1) 醫學入門 水腫篇
- 2) 漢方診斷學 p.208.
- 3) 漢方診斷學 p.208.
- 4) 丹溪心法 p.302.
- 5) 東醫寶鑑 p.496.
- 6) 四象原論 p.16.
- 7) 四象原論 p.16.
- 8) 9) 10) 四象原論 p.17,19,21,23,26,28.
- 11) 12) 漢方診斷學 p.207,208.
- 13) 15) 四象原論 p.21,25.

- 14) 東醫四象診療醫典 p.93.
- 16) 四象原論 p.27,29.
- 17) 東醫四象診療醫典 p.93.

- 4. 醫學入門醫頭 李梴 大星文化社 서울, 1984, p.104.
- 5. 漢方診斷學：朴英培 金泰熙 編著, 成輔社, 1986, pp.207~209.
- 6. 丹溪心法附餘：朱震亨, 大星文化社, 1986, p.302.
- 7. 黃帝內經：洪元植 編, 高文社 서울, 1974.
- 8. 四象原論：宋一炳 講述, 四象醫學教室, 1979, p.16~29.

### 參 考 文 獻

- 1. 東醫壽世保元：李濟馬, 杏林出版社 서울, 1974.
- 2. 東醫四象診療醫典, 杏林出版社 서울, 1975.
- 3. 東醫寶鑑：許浚, 南山堂 서울, 1973, p. 496, 497.